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로의 안녕을 묻고 답하는 것이 통상적 안부인사가 아닌, 매일 매일의 절박함으로 자리 잡은 지 벌써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학생들의 안전한 배움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된, 유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서도, 학습, 식사, 돌봄 등 알뜰살뜰 종일 자녀들을 보살펴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에 우리 서울 교육은 배움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교육의 부재가 가져온 문제가 학부모님들의 희생과 노력 등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회복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전면등교의 전제 조건으로서 촘촘한 방역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그동안 전 사회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내 감염 사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부모,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교육청도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학교 방역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과대학교에 보건강사 등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방역물품 구매, 급식 방역, 학교 운동부 방역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방역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결손회복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학습·정서·신체·사회성 영역에서 다양한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등교확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한 방역에 기반한 2학기 단계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습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과후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 맞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등 학습결손에 대해 꼼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체력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업 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학기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낡은 책걸상과 사물함을 전면 교체하고, 전기 및 소방 등 필수적 안전 설비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1학생부터 시작하여 스마트기기를 학교와 가정에 휴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서울형 BYOD(Bring Your Own Device: 1인 1스마트 기기) 정책’ 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습 경험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배움의 기회와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방송실을 디지털 미디어센터로 구축하고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설치함으로써 수준 높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비대면 학교도서관, 신나는 AI 교실,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등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습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방안 외에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라면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찾아 섬세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 외부 상황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점 흔들림 없이 뚝뚝 뚫쳐 오직 서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꽃은 말하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꽃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아이들 하나하나를 떠올려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해진 경로대로 숨 가쁘게 달려온 교육의 틀을 벗어나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나긴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은 쉽 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그저 넉넉한 마음과 시선으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부모님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여정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드림